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1:19-30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짐으로 시작 된다.

8:4에서 사울의 핍박과 스테반의 순교후 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8:1-4)처럼 11:19절에서도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말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흩어지게 됨은 매우 불행한 일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 되는 기회로 삼는다.

1. 이름 없는 평신도들에게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다(11:19-21).

두 경우 모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 예수의 이름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하는 베니게와 구브로섬,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도시까지 북쪽으로 퍼져 나갔다(19).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서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다. 그들에게 전파한 말씀은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주”로서 선포했다(20-21). “주”로서의 복음 전파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능력의 역사와 그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 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누구든지 참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날 평신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 할 수 있을까? 나는 일대일 성경공부가 평신도들이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평신도들은 많은 대중 앞에 설교해서 복음 전할 기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는 사람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일대일 성경공부가 복음 전도에 효과적인 이유는 일대일 성경공부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대일을 많이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때로 나 자신이 성령충만을 받지 못하여 성경공부시작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시작 하지만 성경말씀을 같이 읽고 그의미를 나누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2.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함(11:22-24)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시작 될 때는 예루살렘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냈는데 여기서 사도들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아마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냈을 것이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

들을 잘 훈련 시켜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 부흥이 일어났다. 교회에 새로 파송 받은 사역자는 그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가 계속 역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도들로 하여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도록 돕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굳건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 할 때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는 자는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복음을 들어야 한다. 먼저 믿는 자가 신앙이 자라야 교회는 부흥한다. 먼저 믿는 자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 3.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교회를 공고하게 함(11:25-26)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대려다가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았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Christianoi)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은 Herodianoi(헤롯릭 사람), Kaisarianoi(가가이사라 사람) 같이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추종자들, 종들이라는 의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큼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것이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만큼 제자들을 잘 양육해 놓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 4. 선행으로 인증된 교회(11:25-26).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을 때 안디옥교회가 헌금하여 물질적으로 예루살렘교회를 도왔다.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참된 믿음은 선행으로 인증 된다. 앞에서 2:42-47과 4:32-37에서 살펴 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적으로도 상부상조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15-16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처럼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점에서 선행으로 참된교회라는 인증을 받은 것이다.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이렇게 썼다. “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로마서 15:27b).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 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방인의 선교를 이루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안디옥교회는 성도들이 친히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였다는 것이다.

둘째,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자 훈련을 잘 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도 교회를 잘 다스리는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이다(13:1-3참조).

넷째, 예루살렘교회와 영적인 연합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다섯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교회이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교회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와 유사한 교회가 있어 이시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처음 한양대학교에서 예수를 믿은 홍귀표 목사는 미국에 건너가 처음 한인 대학생 중심으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으로는 세계선교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다민족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로는 영어로 설교한다는 것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알아 듣지 못하여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 영어로 설교하면서 세계각지에서 미국에 온 민족들을 전도하고 개인적인 훈련을 시켜 다민족교회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 받은 성도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중남미, 아프리카, 필리핀, 인도등 10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 된 것이다. 이런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선교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